

제주, 생명존중도시로 나아간다 (8) 제주의 과제

생명안전망 넓어졌지만 다시 마주한 ‘아픈 지표’

제주가 다시 ‘아픈 지표’를 마주했다. 2024년 처음 기록했던 ‘자살률 전국 1위’가 2년째 이어지면서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2025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고의적 자해(자살)에 의한 사망자는 231명으로, 전년(243명)보다 12명(4.9%) 줄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뜻하는 자살률도 34.8명으로 전년(36.3명)보다 1.5명(4.1%) 낮아졌다. 지역 간 연령구조 차이를 보정한 연령표준화 자살률 역시 30.3명으로 전년(32.4명)보다 2.1명(6.5%) 감소했다.

자살사망자와 자살률이 줄어드는 등 지표는 개선됐다. 그러나 제주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23.2명)과 비교하면

(2.8명)보다 3배 이상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전국 평균(8.6명)도 웃돌았다.

▶ ‘사회적 문제’라는 시작점=제주의 자살예방 체계는 이전보다 넓어졌다. 자살을 정신건강의 문제만으로 보지 않고 경제·고용·건강·사회적 고립 등 여러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면서다.

제주도는 위기대상자 발견부터 위험도 평가·개입, 상담·치료, 복지·경제 등 서비스 연계, 지속 관리로 이어지는 ‘제주형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경제위기층과 청년층, 1인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청소년·학생 등 6개 분야를 우선대상집단으로 설정해 위기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연결하는 작업도 진행해왔다.



제주도는 자살을 여러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면서 자살예방을 한 기관의 역할에만 맡기기보다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로 확대하고 제주만의 생명안전망을 그려나가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 도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의 모습. 특별취재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도내 행정 전달체계와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공조하는 시스템을 다지는 동시에 지역 내 이웃의 미세한 변화를 살피고 위기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는 지역 공동체 전체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지역의 역할과 연결=‘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 정부도 지역단위의 대응력을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내놓은 ‘국가자살예방전략’은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발굴·예방·지원을 위한 ‘풀뿌리 자살예방 전달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지자체별 자살예방관 지정·분청 내 자살예방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 확보 등이 담겼는데, 보건·복지·고용 등 흩어진 자원을 연결해 지역단위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제주도도 올해 3월 행정부지사를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했다. 지역 자살문제를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닌 도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공동의 과제로 넓히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구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업운영본부장은 “자살예방은 보

건·정신건강 영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200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여러 분야의 협력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흐름으로 전환됐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제주지역이 중요한 방향을 잘 설정했다고 본다”며 “자살예방관을 중심으로 각 부서가 지역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실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결을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조정할 중심 조직과 현장의 전문인력도 필요하다. 서울·경기·충남 등 일부 지자체는 ‘자살예방팀’, ‘생명존중팀’ 등의 이름으로 자살예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주에는 아직 별도 전담조직이 없다. 현재는 제주도청 안전건강실 정신건강팀 소속 2명이 정신건강사업과 함께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제주도는 자살예방 활동과 보건·복지·고용 등 관련 분야의 연계·관리 업무를 맡을 조직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또 사례관리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과제다. 현재 사례관리자 1명이 평균 30.5명을 담당해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인 ‘25명 이하’를 웃돌고 있다.

일본 와카야마현 사례가 보여준 것도 자살예방에 있어 중요한 것은 결국 ‘지역의 역할’과 ‘연결’이었다. 이미 마련된 안전망이 위기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중심을 잡고 이를 조정하고 연결하는 조직과 인력이 갖춰져야 하고, 여기에 일상에서 위험신호를 발견하는 지역사회의 관심도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다시 마주한 ‘아픈 지표’는 제주가 생명존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끝〉
특별취재팀·박소정·양유리·강희만기자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 1577-0199, 자살 예방 상담 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렌’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립 중등 87명·사립 25명 선발
도교육청, 임용시험 계획 공고

제주지역의 내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이 사전 예고대로 총 87명으로 확정됐다. 이 중 7명이 장에 구분으로 선발된다.

제주도교육청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과목별로 보면 국어, 수학, 영어 등 13개 교과에서 49명을 뽑는다. 이외 과목별 선발 인원은 특수(중등) 11명, 보건 5명, 영양 12명, 사서 3명, 전문상담 7명 등이다.

원서 접수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교직원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도내 사립학교에서도 중등 교사 25명(12개 과목)을 선발한다. 남녕학원, 남주학원 등 사립학교 법인 6곳이 도교육청에 위탁 채용을 신청했다.

1차 시험은 공립과 동일하게 도교육청이 주관한다. 제주여자학원은 2차 시험까지 전 과정을 위탁해 신규 교사를 선발하기로 했다. 나머지 학교법인은 자체 계획에 따라 2차 시험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 임용시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은기자

‘제주교육 공덕비’ 제막식
도교육청, 10월 1일 오사카서

일본 오사카 현지에서 ‘재일제주인 제주교육 공덕비’ 제막식이 열린다.

제주도교육청과 제주교육박물관은 10월 1일 공덕비가 세워진 오사카 학교법인 백두학원 건국학교에서 이를 기념하는 제막식을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공덕비가 건립된 지 9개월여만이다.

백두학원은 1946년 해방 직후 설립된 민족학교로 재일동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힘써 왔다. 제주도교육감 명의로 이곳에 세워진 공덕비에는 제주교육 발전에 기여한 재일제주인을 기리는 뜻이 담겼다.

제막식에는 고의숙 교육감과 강동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오사카 교육·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제12회 평화음악회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

2026. 10. 05.(월) 18:30 탐동 해변공연장

생명존중 · 자살예방 캠페인과 함께하는 평화음악회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위로의 선물과 평화의 마음을 모아 생명의 길을 함께 걷습니다.

| 특별 체험 부스 운영
 10월 5일 (월) 탐동해변공연장 15:00 ~ 18:00
 기독교·원불교·불교·천주교 각 종교별 체험 및 상담부스 운영

| 후원

| 주최·주관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
 Jeju Religious Leaders Council

제12회 평화음악회 모시는 글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제12회 평화음악회에 여러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올해 평화음악회의 주제는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입니다. 거센 파도처럼 우리 삶에도 갈등과 상처, 외로움과 아픔이 찾아 오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손을 맞잡을 때 우리는 다시 희망의 항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평화와 생명존중, 자살예방의 소중한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마련했습니다. 음악이 슬픔을 위로하고 절망에 희망을 전하듯,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따뜻한 이웃과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는 종교와 종단의 경계를 넘어 사랑과 나눔, 연대의 정신으로 더 따뜻하고 안전하며 희망찬 제주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한 걸음 하셔서 아름다운 선율과 감동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회 평화음악회에 여러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사)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 이사장 박병해 목사
 문의 : 064) 751-7708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제12회 평화음악회 2026. 10. 05 (월) 18:30 / 제주탐동해변공연장

◎ 단체출연

- **천주교** : Team.LANDS(팀.랜즈)
- **불 교** : 우담바라어린이합창단
- **기독교** : 제주소나이합창단
- **원불교** : 원불교 원음합창단

노래하는 수행자 수안스님

천주교구 사제단 밴드 블랙서츠